

차세대중형위성 4호, 한반도 첫 교신 성공

- 한국시간 7월 7일 오후 10시 50분에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 첫 교신 성공

- 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, 산림청(청장 박은식), 우주항공청(청장 오탈석)은 ‘차세대중형위성 4호(CAS500-4)’가 해외 지상국과 4차례 교신 이후 발사 약 6시간 38분 후인 한국시간 7월 7일 오후 10시 50분에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(이하 ‘항우연’)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.

* 초기운영 기간 동안 2개의 해외 지상국(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 및 남극 세종기지)을 활용

-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 첫 교신에서 태양전지판 전개 성공 여부 확인 및 본체 상태정보 이상유무 확인을 수행하였고, 안정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X-대역 안테나 전개, 자세제어계 구동기 활성화 및 기능점검 등을 추가 교신을 통해 수행할 계획이다.

- 차세대중형위성 4호는 초기운영 후 2027년부터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며, 농업·산림 관측과 산불 등 재난, 재해 대응 분야의 데이터를 제공한다.

담당 부서	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스마트농업팀	책임자	과 장	윤남규 (063-238-0850)
		담당자	연구관	조정건 (063-238-0856)
담당 부서	산림청 기획조정관 산림디지털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영지 (042-481-4160)
		담당자	사무관	이제희 (042-481-4161)
담당 부서	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 지구관측위성프로그램	책임자	과 장	김응현 (055-856-5230)
		담당자	사무관	오탈형 (055-856-5231)